바벨론 음녀와 어린양의 아내(들)

(계19:1~10)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벨론 음녀와 어린양의 아내(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린양의 아내들에서 '들'자는 괄호를 치시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아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큰 음녀로 비유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등진 세속문화가 절정을 이룬 도시나 절정을 이룬 상황, 절정을 이룬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과, 세속문화의 화려한 꽃피움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속문화가 절정을 이루는 곳은 실제 이 지구상에서 시대마다 몇 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바벨론을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이끈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바벨론의 음녀와 대조되는 어린양의 아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바벨론 음녀는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 속에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음행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잘 준비되어서 이제 혼인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온 계시록의 어떤 장보다도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어렵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이제까지 읽어 온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본 13장의 666짐승 이야기가 나올 때 논란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에 못지 않게 19장 전, 후반부와 20장을 넘어가면서 더한 논란이 일어나는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관점을 잡아서 이제까지의 계시록 내용의 성격을 뚜렷이 이해하고 천년왕국 본문으로 들어갈 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근접한 이해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냐?
어린양의 아내가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동안 아내가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입도록 허락하신 옷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허락하느냐?
잘 준비된 자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이제 어린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혼인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착안해야 될 점은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9절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어린양과 결혼하게 되는 아내는 누구이며,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결혼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어린양의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아내들로 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아내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뜻하는 것이 청함을 받은 자들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그 전체가 한꺼번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단체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할 때에,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다 모아서 아내 노릇을 올바르게 단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시장에서 내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올바른 행실을 단체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옳은 행실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열을 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봐요. 그 동안 말씀을 다 드렸어요.
우리처럼 결혼하자고 해서 곧 바로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약혼이라는 것이 있지만 정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중에 예수님을 임신하잖아요. 이거 큰일 날 이야기거든요. 정혼 기간이 1년 동안인데 이때에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의 관계가 인정됨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같이 사는 것은 언제부터냐?
정혼 기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혼인식을 합니다. 혼인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정혼 기간이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정혼 기간을 쭉 지내는 동안에 신부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때 입을 옷을 허락했는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앞에서 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곱 교회는 다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처음에 일곱 교회가 보이고 나서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어린양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양에 의해서 일곱 봉인이 떼어지고 그 봉인의 마지막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나팔이 등장했고, 일곱 나팔 째에 일곱 대접이 등장하면서 계시록 내용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돼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3대 7중 재앙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삽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삽경을 포함하는 3대 7중 재앙 전체내용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나 한 사람이 어린양의 아내로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드디어 이제 혼인 기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혼인 기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3대 7중 재앙과 일곱 가지 삽경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이 통과되면서 내가 혼인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서 이제 혼인할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은 이제 19장 넘어서 나중에 나와요. 그 때에 어린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게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그 내용은 나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는데 잘 안돼요.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세워진 바벨론을 향하여 나의 꿈과 내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소원을 갖는 체질이 한 순간에 기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어린양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 동안에 3대 7중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기점으로, 온전히 어린양의 아내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혼인이 시작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찬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이 나에 대해서 내 시대에 망한 것이라면,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바벨론은 아예 망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망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영적으로

큰 음녀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이 그 사람에게도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 짐승과 붉은 용인 사탄이 불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도 재림해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붉은 용이라든지 짐승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붉은 용과 짐승의 영향력이 끝난 채로 살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기까지의 상황이 내게 적용된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패배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오늘의 사건으로 붙잡을 때마다 미가엘과 붉은 용과의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인 그 일이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저절로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지금까지 내용들이 다 반복되어서 각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제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해하는데 특히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 개인은 언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계약이 찬 시기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혼 상태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공중, 땅의 이 세 개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계시록의 내용들이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천 년 전의 사람에게도 계시록의 모든 내용과 3대 7중 재앙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 이천 년 뒤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3대 7중 재앙이 다 반복되고, 결국은 이 모든 계시록의 내용을 거치게 되는 궁극적 목표가 혼인이에요. 정혼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 앞서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금 촛대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부터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혼인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혼인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까지도 바벨론 음녀를 심판으로 멸망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 음녀가 망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정식으로 혼인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당장에 내가 올바른 행실을 하는 예수님의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내다운 아내가 되기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공중, 하늘, 땅의 세 개의 차원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붉은 용과 싸우고 두 짐승과 싸우고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이 떼어지고 나팔들이 불어지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내가 혼인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예수님의 아내로 혼인하는 겁니다. 그 동안은 정혼 기간이고 정혼 기간에도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하나 되지는 않은 거예요. 함께 사는 진짜 행복한 삶이 주어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 동안에는 광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괴로움도 있고 인내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가나안 복지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행실이고 아내로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사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치의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사치의 영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맞춰진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의 주입구를 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과녁이 빗나간 것이죠. 하마르티아, 즉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일을 짐승이 성공하게 하고 짐승이 번영하게 하고 짐승이 형통하게 해줍니다.
많은 가치를 모아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권세를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뭘 하나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런데 차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이즈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차지 않으니까 채워질 때까지 거기에 사치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인 바벨론의 사치를 중단하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로 만족하는 준비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 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5감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우글우글 살아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늘로만 기뻐하겠다고 마음이 확정되는 자들이 바로 혼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하면 이런 혼인 상태에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왕 노릇 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진짜 가나안 복지를 사는 것입니다.
진짜 가나안 복지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돈이 많이 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라이브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는 생활, 이게 바로 복지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혼인 전까지는 정혼의 기간이므로, 오늘의 번제 시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자고, 하나님만으로 배 부르자고 하는데…
왜 배부름도 없고 기쁨도 없는가?
아직 우리가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 즉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배 부르려고 하는 삶의 방식과, 하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어린 양의 정혼한 아내들의 삶의 방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기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야, 이제 진짜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살 것은 하늘의 아버지로써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마음의 만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얻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을 하늘에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기차타고 어딜 돌아다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 직원들과 담판을 짓는다고 하늘로 만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어린 양되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기도를 통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며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날마다 쌓이도록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어

느 순간이 되면 마음에 확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결단코 바벨론의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해요.
‘연기가 올라간다.’
이 말은 내가 바벨론이 타는 연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바벨론과 결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일곱 머리 짐승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다섯 왕은 있었고 하나의 왕은 지금 있고 하나의 왕은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으로써 다섯 개의 바벨론은 이미 망해서 지나갔고, 지금 동시대에 내게도 바벨론이 있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도 바벨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망한 모습이 주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로만 기뻐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생겼을 그 때에 옳은 행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허락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서 직접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사시는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어린양과 혼인한 상태이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마치 언뜻 보면 범 우주적인, 땅이 삼분의 일이 망하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고 난리를 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나 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네 번 나와요. 신약성경에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 마음에서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방식을 쫓지 않겠다는 확고함이 주어질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공중과 땅에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절로 하늘로만 기뻐하겠다는 이 마음, 이 결심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생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다 혼인 할 수 있는 아내로 준비 된 것이 아니고, 정혼 기간 중이고 계시록의 내용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십사만 사천 명으로 상징되는 선민의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 기간의 중간쯤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이 그 심령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더 이상 음녀가 힘을 발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준비된 혼인 기약이 찬 어린양의 아내들입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티끌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중과 땅의 이 세 차원 속에 일으키신 역사를 보면 할 말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할렐루야를 하루 종일 연발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